대구종친회 정기총회 새회장에 권영하씨 선출

대구종친회는 지난 11월 9일 오후 7시 대구 인터불고호텔 레이디스홀에서 족친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상주 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에 이어 권순호 회장의 내빈소개가 있었으며 권영수(대구청장년회장), 권혁인(운영위원), 권오신씨(대신종친회)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권순호 회장의 인사말과 권도혁 동정공파 종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권기범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결산보고, 심의, 통과되었다. 임원선출에 들어가 권영하 고문을 새 회장으로 감사는 권충강, 태순씨를 선출했으며, 부회장, 운영위원은 전원 유임되었다.

권영하 신임회장의 인사에서 그간 권순호 회장이 재임시에 대구 종친회 활성화와 문사진작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인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부덕한 제가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토의를 하고 만찬에 들어가 건배하면서 앞으로 종친회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폐회했다. 〈권기범 사무국장〉

贈 議政府右議政 花山府院君 諱 復

증 의정부 우의정 화산부원군 휘 복

■ 權 貞 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또 병조와 이조참의도 지낸 것이 밝혀졌다. 참의로서 요직인 병·이·호·3조의 참의를 지낸 것이다. 그리고 전의 병조참의로서 진헌사로 발탁 되었다가 직위가 낮아 가지 못했던 중국사행을 이번에 호조참의로서 정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매 드러났으니 더욱 놀라울 일이다. 2품 이상 경대부가 차 행할 연행燕行 사절의 정사正使의 공이 3품 당상 통정대부 참의로서 차임되어 나갔으니 그 사행使行능력을 조정에서 그만큼 인정받았던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 무렵 북변의 야인 문제는 조정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공이 사행을 가기 바로 한 달 전 4월에 조선에서는 유명한 파저강 야인정벌婆猪江野人征伐의 큰 전역을 벌렸다. 세종대왕이 그 황금기 치세의 국력을 크게 신장하여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만 정벌한 것이 아니라 이때 야인도 정벌했던 것이다.

이는 세종15년 1433년 4월 압록강 중류지대 파저강의 여진족 야인을 정벌한 사건이다. 파저강 유역에 사는 여진족은 강계와 여연 등지로 자주 침입하여 사람과 곡식을 약탈하거나 그 피해가 막심했다 .세종은 최윤 덕에게 1만 5천 병력을 주어 보내 수적 이만주의 본거지를 엄습하게 했다.

최윤덕은 이순몽·최해산이가 이정석·김효성·홍사석 등을 부하로 데리고 가 일대를 정벌하여 170명을 목 베고 남녀230명을 생포했으며 우마 170여필을 포획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강계의 4군을 두어 야인의 재침을 막게 해 놓았는데 최윤덕의 군사가 철수하자 야인이 다시 이 지역을 넘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파저강의 야인은 당시 조선이나 명나라에 큰 두통 거리였다. 이때 공이 야인에게 억류 되어있던 명나라 백성 20여명을 요동 도사에게 인계하여 쇄환시킨 것은 연경에 가서 명나라 조정과 사절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이점이 되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5월16일에 공은 병조좌참의兵曹左參議로 발령된다. 이는 아직 사행 중일 때 보직이 이와 같이 바뀐 것이다.

우참의에서 좌참의가 되는 것은 승진이므로 공이 우참의로서 사행을 하는 도중에 병조의 좌참의로 승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로부터 한해가 지난 세종世宗 16년 1434년 4월 3일자 인사에서 공은 이조우참의吏曹右參議가 된다.

병조의 좌참의에서 이조우참의로 다소 낮아진 것 같지만 여타조와는 비할바가 아니다. 그리고 무과출신자로서 이조참의에 보직되는 일은 세종대가 아니면 상상이 안될 일이었다. 이 시대에서 최윤덕이 무관으로서 공이 많고 세종의 신임이 두터워 공조판서에 발탁되고 파정강의 야인을 정벌한 뒤에는 우의정에 오르고 결국 좌의정에까지 이르렀으나 이조의 보직된 일은 없었다. 따라서 공이 무과출신으로서 이조참의에 보직된 것은 조선조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2달 뒤인 같은 해 6월 28일에 공은 이조 우참의에서 좌참의가 되었다. 공이 문무양장 출신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세종16년 1434년 8월 5일자 실록에 공이 금주령을 어긴 일로 파직되는 기사가 나온다.

이 무렵 음력 8월이면 장마가 걷이고 가을날씨가 되어 곡식이 여물어야 하는데 가을비가 수십일을 계속해 내려 벼수확이 손상되는지라 임금이 크게 걱정하여 금주령을 내린바였다. 그런데 중추부中樞府에 있던 이순몽李順夢이 경상도도절제사慶尙道都節制使로. 조종생趙從生이 전라도 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로 나가게 되니 행대호군行大護軍 박거비朴去非 행사직行司直 洪거안의 집에 연희를 베풀고 이순몽과 조종생을 청해 전별餞別하면서 같은 동래에 사는 전판서前判書 박신朴信과 참찬參贊 이맹균李孟均 행첨지중추부사行僉知中樞院使 민의생閔義生 및 이조좌참찬吏曹左參贊인 공 등을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하도록 청했다. 그러자 거기에 판전농시사김간判前農侍事金艮 전남양부사全南陽府使 윤창尹敞 및 박거소朴去蔬의 아우 부사정副司正 박거소도 같이 와서 모였다. 그런데 이때 공이 이조참의로서 관습도감 부제조를 겸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樞密公派大宗會 第31次 理事會

추밀공파대종회 제31차 이사회

2012년도 추밀공파종회 이사회에서 권혁승 회장이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다.

추밀공파대종회(회장 權赫昇)는 지난 11월20일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이사(理事)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理事會)를 개최하였다.

권영빈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始祖) 태사공묘소를 향하여 망배, 열선조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등 상례행사를 마치고 혁승회장은 인사에서 추밀공파종회는 종재(宗財)가 많지 않아 임원(任員)들의 회비(會費)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회원을 확충(擴充)하기 위하여 금년은 포천, 정읍, 양평지방을 다녀왔으며 자산 3억여 원을 보존하며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 용두동 대종원 인근으로 사무실(事務室)을 이전(移轉)함에 있어 임원들의 협력이 많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사무국장의 2012년도 경과보고와 결산보고를 승인하였다. 감사의 감사보고 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무수정 통과하였다. 임원(任員)회비(會費) 납부는 임기 3년간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만 정기총회(定期總會) 대의원(代議員) 자격(資格)을 부여한다고 거년 정기총회에서 결의(決議) 되었기에 회비납부자 명단(名單)을 회의자료에 수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종회에 찬조금 협조자와 종보대 납부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종회회지(宗會會誌) 발간(發刊)은 각 지파에서 원고(原稿)를 거의 접수하였으며 연구위원이 자료를 정리하여 년말까지 발간(發刊) 보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기타토의에서 추밀공 추향(樞密公秋享)시 매년 참제자들이 제례행사 중 간섭을 하여 제례가 엄숙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홀기(笏記)를 검토해 달라는 임원이 있는가 하면 추밀공 홀기는 수년전 임원들이 통일(統一)을 본 것으로 홀기는 이상 없는데 집안별로 절차가 다르며 제례전 예행연습을 했는데도 그러니 당하집례(堂下集禮)를 두어 해설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어찌하건 당하집례는 일반적 해설이고 홀기 해석이 아니므로 집례가 홀기를 읽고 해석해주든가 시조님 추향처럼 전문(專門) 제례위원(祭禮委員)을 두어 제례위원(祭禮委員)이 헌관(獻官) 및 집사자(執事者)에게 행례(行禮)를 지휘 감독(監督)한다면 참제자 들이 참견을 하여 혼란(昏亂)을 야기(惹起)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헌관 및 집례가 진행 중 좀 틀린다 하여 빈축을 주지 말고 경건(敬虔)히 봉행(奉行)하였으면 한다.

이어서 대종원 사무총장은 연락사항으로 안동권씨15파 원류도(일명 100계도)를 편집 중에 있으며 각 파에 교정을 요청하였는데 17세(世)까지는 140 여분을 모두 입록하고(단 무후 시 미기록) 18세(世) 이후는 지면관계로 2품직(品職) 이상과 서원(書院)에 배향된 분만 입록하기로 하였으니 검토 협조 바란다고 하였다.

참고로 규격(規格)은 가로 1m 세로 40cm에 사진과 사성유래, 향사, 세차배정항렬 등이 들어가고 각 선조는 휘(諱)자와 시호(諡號) 또는 호(號)를 입록한다고 하였다. 〈편〉

釜山 宗親會副會長團 懇親會

부산종친회(회장 권길상)는 지난 11월 8일 오후 6시30분 蓮山洞 소재 옛골토성에서 회원45명 참석하에 부회장단 간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행사를 마친 다음 권길상 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저녁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신 부산종친회를 이끌어 가시며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회장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3년임의 종친회장을 맡아 오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한 고마운 인사 말씀과 아울러 3년임의 임기도 5, 6개월여 남겨두고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그간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허심 탄회하게 말씀 나누어 주시고 오는 12월 2일 (10月 中丁日)은 시조 태사공(始祖 太師公)님의 추향을 맞이하여 초헌관으로 권덕수(權德守) 부회장님을 모시고 버스2대를 대절하였으니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였다.

이어서 격려사로 권영한 고문의 대종원의 제반 사항과 낭중공 비각 이전건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권영 부회장은 권길상 부산종친회장과 권영한 고문에 대한 수고와 격려의 칭찬이 있었다.

사무국장의 경과보고가 있은 후 권중원(權重元) 수석부회장의 건배제의와 식사를 끝으로 이날 행사를 모두 마쳤다. (권재혁 사무국장)

모범친목회 순례 ②

大邱耆老會·大邱33宗親會長

대구기로회 대구33종친회장

蒼瑞 權泰仁씨

이달에는 대구지역에 오문의 원로친목회인 大邱耆老會(대구기로회)와 대구 거주 권문 족친 33人의 화목이란 목적으로 출범한 '대구33종친회'를 조명코져 한다.

'대구기로회'는 1997년 4월, 26여명의 발기인으로 창립총회를 열어 초대회장에 권승호씨(權承鎬)가 선출되어 元老(원로)족친규합에 앞장서며 기반조성에 크게 진력했으며, 이어 2대회장에 권태윤씨(權泰允)가 선임되어 元老間(원로간)에 親睦(친목)과 효친사상을 고양시키며 타(他)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음 2007년 10월 권태인씨(權泰仁)가 3代회장에 취임하여, 오문의 뿌리찾기, 시·아조춘추향사참제, 상혼관제 참석, 권문유적지탐방 등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대구33종친회'는 1976년 5월, 대구거주 족친 33人이 친목회로 발족했으며, 2代회장에 권태인씨(權泰仁)가 선출되어 會의 기초기반을 구축해 반석 위에 올렸으며 이어 18~19代 권태인회장이 연임되어 어언 36여년간의 '맥'을 이어오면서 종족간에 혈통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대구종친회와 유대를 강화하며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다.

한편, 창서(蒼瑞) 권태인(權泰仁)회장(86, 안동 동정공파, 33世)은 엄친 권중창(權重昌)씨, 자당 신재련(申載蓮)여사의 6남매중 막내로 태어나 대구사대수학과를 졸업하고 안동농림高 등에서 45여년간 교육계에 투신 봉직하면서 교육입국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1993년 3월 정년퇴직했다.

태인회장은 성실, 건강, 화목이란 가훈으로 계획된 생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으며, 슬하에는 김옥도 여사 사이에 3남1녀를 두고 있으며, 포상으로 국민훈장동백장 등을 수훈했다.

〈권오복 편집위원〉

僕射公派悅親稧定期總會 開催

지난 11월 8일(목) 11 : 30 파종회(派宗會) 자문위원(諮問委員)과 고문(顧問)을 비롯한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묵향(默香)의 회의실에서 안동권씨복야공파열친계정기총회를 개최(開催)하였다.

권계동 회장은 바쁜 가운데 많이 참석 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지난번 문화탐방(文化探訪)을 하면서 <실버하우스>에 개최(開催)된 총회(總會) 때 결의(決議)한 대로 가을은 문화탐방(文化探訪)을 생략(省略)하고 이곳에서 총회(總會)를 개최(開催)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열친계(悅親稧)는 권헌성(權憲成) 고문(顧問)이 실무책임자로 있을 때인 1982년에 조직되었으니 현재 30년의 역사를 가진 모임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국(全國)의 파족(派族)을 대상(對象)으로 지파(支派)와 지역의 대표자로 회원 상호간(相互間)의 친목(親睦)과 유대강화(紐帶强化) 및 문사발전(門事發展)에 기여(寄與)함을 목적(目的)으로 하여 조직하였다. 오늘의 모임도 위와 같은 조직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期待)한다며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음력 초 2일인 11월 15일 파조추향(派祖秋享)에 본인은 물론 많은 족친이 참제(參祭) 할 수 있도록 홍보(弘報)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해외연수(海外硏修) 계획 추진 현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보다 많은 족친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권경섭의 감사보고에 이어 권오익 총무의 경과보고, 결산보고, 협찬 내역 설명, 상세한 지출내역의 설명을 하고 기타토의를 끝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식당으로 옮겨 중식을 하며 환담을 나누다가 해산하였다. 〈派宗會 總務 權五翼〉

복야공파열친계정총에서 권계동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함월·무룡친목회 야유회

지난 10월 21일 울산 함월친목회 권영희 회장, 무룡친목회 권세균 회장 및 양친목회 회원 약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례행사인 가을 야유회를 합동으로 서해대교와 수덕사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 진행은 무룡친목회 권오달 총무의 사회로 양친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양 친목회간에 교류와 화합을 이룬지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일족의 끈끈한 정을 새삼 느낀다고 하였으며, 비록 구성원은 다르지만 같은 회원과 다를바 없다고 하였다.

다음은 서해대교를 둘러보고 기념촬영을 한 후 충남 예산에 위치한 백제시대에 창건된 수덕사 경내를 둘러 보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두 친목회가 친남매 처럼 친목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합동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울산종친회 홍보부장 권응목 (010-6476-8259)

부산동구종친회 제32차 정기총회

부산 동구종친회는 지난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30분 동구 부산일보옆 합천한우식당에서 일족 및 회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종친회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권명오 총무의 사회로 상례 행사를 마치고 권영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일기도 고르지 못한 날씨에 참석하여 주신 일족 및 회원과 각구 종친 회장,총무 각단체 회장,총무등 일일이 소개하고 많은 일족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 동구에는 일족이 많이 거주 않는데다 참석율이 저조함을 죄송하게 여기며 앞으로는 좀더 많은 회원이 참석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였다.

이어서 부산종친회 권길상 회장은 축사로 동구종친회 제32차 정기총회를 축하드리며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데 대한 감사의 인사말과 아울러 권영렬 회장은 골프동우회 회장도 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 나가고 있음에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동구종친회가 더많은 인원을 확보하여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동구회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쪼록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희망 하였다. 〈권재혁 사무국장〉

동정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는 2일,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권이혁 총재를 명예총재로 추대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보금자리주택을 전량 임대로 전환하기 보다는 여러 형태의 주택을 혼합해 공급하는 '소셜믹스'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18일~19일 진행된 안동 재경대구, 경북기업인 초청산업현장투어 설명회에서 투자여건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한국MSD(대표이사 현동욱)는 최근 청년슈바이처상(연구활동부문)수상자로 권혁훈 서울대병원 전공의를 선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6일 현대케피코 및 현대오트론·기아차연구개발본부장(사장)에 권문식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제44회 한국일보문학상 수상자로 권여선(47)소설가가 뽑혔다. 수상작은 장편 '레가토', 96년 장편 '푸르른 틈새'로 데뷔한 권씨는 2007년 오영수문학상, 2008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권오준 포스코 사장은 8일 오후 1시 경기도 일산킨텍스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안남성)주관으로 열리는 '2012년에너지R&D성과전'에서 '에너지의 심장을 뛰게하라'는 주제로 특강한다.

▲키움증권(주)사장 권용원)는 8일 앞으로 펀드나, 주가연계증권, 랩, 선물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다루는 모든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홈트레이딩시스템과 모바일트레이싱시스템의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외대언론인회(회장 최맹호·동아일보 대표)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2외대언론인의 밤' 행사에서 권오갑현대오일뱅크사장에게 공로상을 시상했다.

▲권오현 삼성전자부회장(60세)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올해의 기업인 50인 가운데 5위에 올랐다.